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

미술대학 조소과 2023-15275 이서현

이 책은 유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일기장을 통해 등장하는 엄마의 내면도 있다. 두 사람만 속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지 이들에 대한 생각이 가장 오래 남는다. 그래서 우선 유진 엄마의 행동에서 떠오른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한다.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진의 엄마는 그렇다. 그래서 유진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한 선택을 했다. 유진을 바다에 빠뜨리고, 남편의 죽음을 불러온 아들임에도 말이다. 아들이 악마로 보이고 원망할 만도 한데. 만약 엄마가 자식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유진을 평범함 속에서 살도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제삼자인 독자의 입장에서 엄마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뎅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선 유진의 존재가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엄마의 애정에서 우려나온 선택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사람이란 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양쪽 선택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딱히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 엄마의 선택과 비극적인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음으로는 엄마의 인생에 비극을 선물한 유진에 관한 생각이다. 유진은 피, 죽음에 자극을 느낀다. 유진의 첫 살인은 이 자극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의 살인들은 모두 경찰에게 잡혀가거나 자수하지 않기 위해 벌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뎅 이외의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 '자기가 죽인 사람이 행동을 조금만 달리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식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이 남들을 죽이지 않고 꼬리를 내렸다면 그 이상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오뎅 이후의 연쇄적인 살인은 모두 유진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자신을 탓하기보다 남의 행동을 탓하는 점. 그리고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 이런 점에서 유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생각은 완독 이후에 들었다. 유진이 오뎅 이후의 살인을 후회한 이유가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닐 것 같다. 사람을 죽이면 생기는 귀찮음, 예로 추가적인 살인이나 흔적 지우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에 대한 후회이지 않았을까 싶다.

해진은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등장인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유진에 대한 여러 생각이 떠올랐기에 적어본다. 해진은 유진의 악함을 도드라지게 하는 장치 같다. 유진의 악함과 달리 해진은 선함 혹은 보편적인 사람처럼 묘사되기 때문이다. 유진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죄를 감추고 회피하기 바빴다. 그리고 범죄를 감추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며 머리를 굴린다. 반면 해진은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말을 제외하곤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진에게 회피가 아닌 자수를 권한다. 유진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글을 읽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유진의 행동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해진은 유진과 비교되는 행동으로 독자의 판단을 깨워주는 것 같다.

엄마의 판단에 대해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가와 안타까운 마음. 유진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 작품에서 해진이 맡은 역할. 이렇게 책을 읽던 중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 든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책을 읽고 이것저것 적어나가다 보니 큰 기둥이 되는 생각보다는 자잘한 줄기 같은 생각들만 적게 되었다. 그래서 글을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든다. 아마 책을

읽을 때 생긴 의문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읽지 않아 생긴 문제인 것 같다. 다음 책은 중간중간에 메모도 하고 읽는 순간 들었던 의문이나 생각의 답을 다음 문장과 내용들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겠다 다짐한다.